성격을 교정하는 방법

당신이 경계해야 할 것은?

당신의 성격은 어떤가? 장점이 많은가 단점이 많은가? 장점을 살리되 단점을 고치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있다면 어떤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가? 그리고 당신의 성격을 보고 고치라고 충고해주는 친구나 배우자가 있는가?

기철학자 최한기의 『기측체의氣測體義』에 보면 성격의 유형과 그에 따른 대처법을 소개하고 있다.

> 성격이 총명하고 확 트인 자는 지나치게 살피는 것을 경계하고, 견문이 적은 사람은 옹색함을 경계하고, 용감하고 굳센 사람은 난폭하게 될 수 있음을 경계하고, 어질고 따뜻한 사람은 우유부단함을 경계하고, 마음이 고요하고 편안한 사람은 때를 놓치는 것을 경계하고, 마음이 호탕하게 넓은 사람은 어떤 일을 빠뜨리거나 잊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사실 이 말은 최한기 자신의 말이 아니다. 『전한서前漢書』와 『자치통감資治通鑑』 등에 등장하며, 그 후 기질을 고치는 방법으로 자주 인용되는 말이다. 여기서도 성격 또는 기질의 장점을 말해놓고 경계해야 할 점도 들었는데, 아무리 좋은 성격도 단점이 있다는 것, 곧 세상의 모든 일이 다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지혜를 엿볼 수 있다.

그가 여기서 말하는 기질을 고치는 방법은 일단 자신의 그것을 살펴서 경계하는 것이다. 최한기는 이것을 성찰계신省察戒愼이라 불렀다. 자신의 성격이 어떤지 잘 관찰하고 따져서 잘못된 행동에 이르지 않도록 경계하고 삼가는 것이 익숙해지면, 일단 겉으로는 성격이 변한 것으로 보일 것이다. 한 번 그렇게 했다고 성격이 변하는 것이 아니므로, 다시 말해 타고난 기질 그 자체가 바뀌기는 어려우므로 계속해서 살피고 경계하는 수밖에 없다. 그것이 누적되면 자연스럽게 행동이 교정되지 않을까?

성격을 교정하는 방법에는 여러 방법이 있다. 그 이론적 근거는 앞장 〈기질파악〉에서 설명한 것처럼 공자의 말에도 보이고, 현대적으로 입증이 된다. 곧 선천적 기질과 후천적 학습을 통하여 성격이 형성되므로, 성격을 교정하는 것도 후천적 환경과 학습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

선생의 기질 교정도 앞서 지적했듯이 실질적으로는 기질에 영향을 받아 형성된 성격을 교정하는 것이므로, 후천적으로 어떻게 공부를 하느냐에 달려 있다. 그 방법이 무엇일까?

너 자신을 이기라

선생은 기질 변화의 가능성을 언급함과 동시에 그 방법도 소개하고 있다. 만약 여러분에게 좋지 못한 성격이 있다면 이참에 고치는 시도를 해보는 것도 나쁠 것이 없겠다. 선생이 가장 먼저 꺼낸 카드는 『논어』에 나오는 극기복례克己復禮이다. 곧 "자기의 사욕을 이기고 예禮로 돌아가는 것이 인仁을 실천한 것이다."라는 말이 그것이다.

공자의 그 말을 들은 제자가 재차 자세하게 해당 조목을 물으니 "예가 아니면 보지 말고, 예가 아니면 듣지 말고, 예가 아니면 말하지 말고, 예가 아니면 행하지 말라."라고 말하였다.

이는 유학의 전문 용어로 '네 가지의 하지 말라'는 사물四勿이다. 예는 예법으로 공자가 이상적으로 여기는 주周 대의 사회적 규범이다. 아무튼 이게 가능할까? 자신의 뜻과 상관없이 보이고 들리는 것은 어쩌란 말인가? 이것은 욕망이 개입하여 예법에 맞지 않는 것을 의도적으로 보려고 들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그에 대해 주희가 "극기는 자기 몸에 절실한 공부이며, 기질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방법이다."라고 하여, 적어도 진술의 형식면에서 볼 때 극기는 여전히 유효하다. 자기를 이기기 못하고 크게 되는 인물은 없지 않은가? 그래서 인성 함양을 위해 예전에 학교에서 학생들을 '극기 수련'이라는 명목으로 수련회를 마련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욕망은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막아서도 안 되므로, 자신의 욕망을 어디까지 절제·조절하여 이겨내느냐가 문제이기는 하다.

기독교 성서에 예수가 이르기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라고 했는데, 그가 말한 특별한 맥락을 무시하고 문자에만 얽매인다면, 이 세상 남자는 모두 간음한 자일 것이다. 유가의 극기 차원에서 이 말을 다시 음미하면, 음욕을 이겨내는 것이 자기 욕망을 극복하는 길이다. 남자가 무의식적으로 음욕을 품는 자체는 무의식의 영역이니 어쩔 수 없더라도, 의식적으로 극복해 불선한 행동에 옮기지 않는 것이 극기이다. 남자들 사이에 흔히 말하기를 식욕·색욕·권력욕·명예욕·물욕 가운데 가장 끊기 어려운 욕망이 색욕이라 한다. 그것은 아마도 식욕과 함께 본능과 관련된 욕망이기 때문이리라. 혈기 왕성한 젊은 남성은 더욱 그럴 것이다.

그래서인지 유학에서는 부부 사이라도 음탕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친다. 집의 안팎을 구분해 따로 거처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어찌 보면 성행위 자체는 후손을 생산하는 것 외에 특별한 의미가 없어 보인다. 하기야 기독교에도 그런 점이 있다. 필자가 총각이었을 때 모 교회에서 설교하던 나이든 신학박사로부터 직접 들었는데, “부부의 성관계도 알고 보면 권장하거나 축복받을 만한 일이 아니다.”라는 말에 경악했다. 그러다가 나이가 들고 창세기의 에덴동산의 신화를 다시 음미해 봐도, 그 말을 이해할 듯 모를 듯 아직도 아리송하다. 욕망의 성취를 위해서는 반드시 지불해야 하는 대가가 따르고, 그 결과 또한 새로운 업業을 짓는다는 인간의 원초적 삶을 말해주는 것 같기도 하다.

또 극기 외에 선생은 정이의 말을 인용하여 "몸을 수양하는 도리에서 마땅히 덜어내야 할 것이 분노와 욕심이다. 그러므로 자신의 분노를 징계하고 욕심을 막는다."라고 하였는데, 주희는 거기에 보태서 "구덩이를 메우듯 욕심을 막고, 산을 누르듯 분노를 징계한다."라로 하여, 아주 철저하게 욕망과 분노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분노를 징계하고 욕심을 막는다'의 원문은 '징분질욕懲忿窒慾'으로 『주역』의 말이다.

필자도 성질을 완전히 죽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반성하면서 이 징분질욕을 소재로 글을 써 수필집에 게재한 적이 있다. '아! 그 옛날 성현들도 이 징분질욕이 얼마나 힘든 일이기에 이렇게 강조했을까?'라고 생각하며 스스로 위안을 삼았다. 자신을 완전히 이길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가 곧 성인이다. 자신을 이기는 일이 성격 교정의 핵심 방법이다.

학문의 도움으로 성격 교정을

사실 성격을 변화시키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러나 그것을 일일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case by case'로 대응하기는 어렵다. 하나의 요령이 있을 것이다. 그걸 위해서는 학문만한 게 없다.

그래서 선생은 『중용』을 인용하여 "널리 배우고, 자세히 물으며, 신중히 생각하고, 밝게 분별하며, 독실하게 행한다."라고 하여, 학문과 기

질 변화를 연결시켰다. 앞서 〈탐구 대상과 방법〉에서도 언급했지만 학문이라는 말 자체가 '널리 배우고[博學]' '자세히 묻고[審問]'라는 말에서도 나오지 않았던가? 물론 이 때의 학문이란 자신의 덕을 쌓는 것이 일차적이지만, 현대적 학문 개념에서 볼 때도 제반 지식은 가치 형성과 판단에 올바른 근거로 작용하므로, 일반 학문도 성격 변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므로 독서를 통해 교양을 쌓는 일은 인격과 바른 인성의 함양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래서 선생은 『중용』을 인용하여 학문을 하되 성실히 한다면 "비록 우매한 사람도 명석해지고 유약한 사람도 굳세어진다."라고 하였다. 이에 대한 여씨呂氏의 주석에서 "군자가 학문을 하는 까닭은 기질을 변화시키기 위함이다. 덕이 기질을 눌러 이기면 우매한 사람은 명석해질 수 있고, 유약한 사람도 굳세어질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덕이 기질을 이기지 못하면, 학문에 뜻을 두고 있다 하더라도 우매한 사람은 명석해질 수 없고, 유약한 자는 바로 설 수 없다."라고 하였다.

학문의 목적이 덕을 쌓아 기질을 변화시키는 일이란다. 다시 말해 덕이 기질을 눌러 이기는 일이 기질 변화의 의미로 쓰였다. 자, 앞에서 선천적 기질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고 의심한 적이 있었다. 이제야 그 의문이 좀 풀린다. 선생이 이 주석을 인용한 의도는 기질을 교정하는 것이 다름 아닌 덕을 쌓아 기질을 이겨내는 일이기도 하였다. 그래서 그 방법 가운데 하나로 극기를 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덕으로서 기질을 눌려 이긴다는 것이니 기질을 바꾼다는 의미는 성격 변화임을 확실히 알 수 있다.

이제 학문을 함에 있어서, 달리 말하면 자신의 성격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각별한 노력이 요구된다. 그래서 『중용』을 인용하였다.

> 배우지 않으면 몰라도 배울 바에는 잘하지 못한 것을 그만 두지 않고, … 행하지 않으면 몰라도 행할 바에는 독실하지 않은 것을 그냥 두지 않는다. 남이 한 번에 할 수 있는 일이라도 나는 할 수 있을 때까지 백 번이라도 하고, 남이 열 번에 할 수 있는 일이라도 나는 할 수 있을 때까지 천 번이라도 한다.

『중용』에서는 잘 할 때까지 힘써 노력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한두 번에 되는 일은 결코 아니다. 끊임없이 반복해 실천해서 자기 몸에 체득되어야 비로소 가능해진다. 예컨대 악기를 잘 연주하려면 만 시간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이 연주자들 사이에 퍼져있다. 하루에 한 시간씩 연습하면 대략 27.4년 걸리고, 3시간 씩 연습하면 9.1년이 걸린다. 그만큼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어디 악기 연주뿐이겠는가? 세상의 이치가 다 그렇다. 이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일찍이 "한 마리의 제비가 왔다고 봄이 온 것은 아니다."라고 한 말도 부단한 실천을 통해 습관이 형성되어야 행복의 기초가 되는 덕에 이른다는 말이다.

선생의 기질 변화도 이렇다. 누구든 자기 자신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성격을 변화시켜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 어떤 위기와 불행이 닥쳐도 마음 흔들리지 않고 꿋꿋하게 살고 세상을 행복

하게 바라보려면 끊임없는 공부와 수행이 있어야 한다. 학문의 도움이란 그런 것이다.